

Sinopec, P-X 120만톤 증설 차질

Ningbo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시위로 ... 시위대 1만명에 100여명 체포

중국 Zhejiang(浙江)의 Ningbo(寧波)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고 홍콩 언론과 외신들이 10월28일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 석유기업 Sinopec의 플랜트 증설 계획에 반대하는 Ningbo 주민 수백명이 시(市) 정부 건물 밖에 모여 10월27일 공안에 구금된 시위대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시위는 당초 비교적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나, 공안 200여명이 사전 경고 없이 건물 밖으로 나와 나무에 걸린 현수막을 찢고 일부 시위대를 건물 안으로 연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시위대는 플라스틱 병을 던지며 “사람들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10월26일과 27일 Ningbo 주민 수천명은 시내 중심가 Tianyi(天一)광장과 시 건물 밖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 목격자들은 시위 참여자가 1만명을 넘어섰고 시위로 100여명이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시위 참가자는 “시위는 젊은이들이 주말을 보내기 위해 귀가한 10월26일 가장 격렬했다”며 “4000-5000명의 젊은이들이 Zhenhai(鎮海)구 진입로를 막았으며 공안이 대학생 3명을 검거하고 최루탄을 쏘면서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Zhenhai 공안은 “특수 경찰이 대학생 1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며 “시민들은 불필요한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플랜트는 P-X(Para-Xylene)를 생산하고 있으며, 증설되면 생산능력이 50만톤에서 120만톤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P-X는 중추 신경계와 간, 신장 등 장기를 손상할 수 있으며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민들은 증설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Zhenhai구청은 Ningbo의 당서기와 Ningbo 시장이 10월27일 밤 주민들과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구청은 10월28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화학플랜트 증설 계획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당국이 환경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주민들의 염려와 합리적인 요구 사항에 활발히 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P통신은 플랜트가 위치한 Zhenhai구의 명칭이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 닷컴 Weibo(微博)에서 차단됐고 <화학공장 증설>을 검색어로 입력하면 <규제에 따라 일부 검색결과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공지가 뜨는 등 검열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시위 참가자는 “보통 사람으로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인데도 정부는 성명만 내놓을 뿐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29>